

제 1 회 제주평화포럼

제주평화선언문

2001년 6월 17일

우리는 2000년 6월 15일에 열린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고, 동북아의 공동 평화와 번영을 모색하기 위해 제 1회 제주평화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포럼에서 우리는 평화가 공동번영을 위한 전제조건인 동시에, 공동번영의 토대 위에서만 지속적이고 안정된 평화구조의 정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상호 관용과 인내, 그리고 화해에 기초한 남·북한 교류와 협력의 확대만이 냉전의 마지막 고도인 한반도에 평화공존과 통일을 실현시키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이번 포럼을 통하여 제주도가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전세계의 공동 평화와 번영의 창출과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의 민족화해정신을 계승하고, 동북아의 공동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주평화포럼을 정례화시켜 나간다.

우리는 이미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성문화되어 있는 ‘평화의 섬, 제주’ 정신을 제주평화포럼에 반영,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제주도가 한반도,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의 구축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우리는 제주평화포럼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를 총망라하는 평화와 번영의 지식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이 지역의 분쟁예방 및 해소, 신뢰와 평화체제 구축, 평화정신의 보편적 확산과 국가간의 자유로운 관광교류의 확대, 그리고 공동번영의 연계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우리는 제주평화포럼을 계기로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남북평화센터”를 제주에 설립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 평화와 번영의 체계적 연구 수행을 위한 물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